미국처럼 쓰고 일본처럼 읽어라

미국처럼 쓰고
일본처럼 읽어라
신우성 | 어문학사

책읽기와 뇌의 상관관계

학창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었다. 커서는 업무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가 또 고민이다.

이에 대해 해답이 될 만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외 연구진이 사람의 두뇌 능력, 이른바 '뇌력(腦力)'과 책읽기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다. 실험을 주도한 일본의 도호쿠 대학 가와시마 후토시 교수(뇌과학 전공)는 '독서의 무한한 능력'을 검증하는 실험을 했다. 학생들에게 '내일 할 일을 생각한다' '트럼프 게임을 한다' '책을 읽는다' '음악을 듣는다' 등 100종류 이상의 과제를 준 뒤 'FMRI'(기능적 핵자기공명 영상법)로 뇌 내부 자장의 미세한 변화를 관측한 것이다(이 측정에서는 뇌가 활발해지면 그 부분이 모니터 화면에 붉게 표시된다). 그 결과, 책을 읽을 때 놀라울 만큼 넓은 부위에 걸쳐 빨간색이 나타났다. 반면 게임을 하거나, 내일 할 일을 생각할 때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가와시마 교수는 책을 읽으면 주의력, 창조성, 사람다운 감정, 의사소통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뇌 부위인 전두전야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즉 책읽기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활동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글쓰기는 역량향상의 근본이 된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는 신입생에게 한 학기 동안 '논증적 글쓰기 수업'을 듣게 한다. 이 수업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글을 자세하게 첨삭하는 점이 특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첨삭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들과 1:1로 대화하며, 지속적으로 퇴고를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글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을 주제로 교수와 학생이 개별적으로 만나 몇 시간씩 토론을 하기도 하고, 글이 전공 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하는 데에도 신경을 쓴다. 이 수업은 단순히 작문실력을 높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고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게 해준다. 이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할 때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체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글쓰기가 역량을 향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공과대학 MIT에서도 많은 예산을 글쓰기 교육에 투자한다. MIT는 '글쓰기와 의사소통센터'라는 기관을 두고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을 진행한다. 졸업생 대부분이 기술자와 과학자가 되는데, 향후 그들의 업무가 35%이상 글쓰기와 관련이 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한 것이다. 사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글로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MIT가 글쓰기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는 이유다.

경제 대국의 힘은 독서에서 나온다

일본의 독서 교육 의지 또한 대단하다. 일본은 2005년에 "활자문화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명시되어 있다. 출판업계에서는 학술출판, 학교도서관 운영, 독서진흥 민간단체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는 활자문화 진흥방안으로 북스타트 운동의 보급 지원, 책 읽어주기 사업 지원, 공공 도서관의 기능 강화 등을 마련했다.

일본이 이렇게 독서문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경제대국이 된 현재의 힘이 국민들의 왕성한 독서력에서 나왔다고 믿는다. 하지만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책이나 신문을 기피하는데 위기를 느껴 이런 법까지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독서기피현상이 일본인의 지적 역량을 떨어지게 하고, 정서에 부작용이 생길 뿐 아니라, 경제와 과학 기술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지속적인 독서는 정의감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뿐 아니라, 인생에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 일본은 이러한 독서 문화 진흥에 주력한 결과, 그 성과나 영향력에 대해 효과를 보고 있다. 경제성장의 차원을 뛰어넘어 독서가 사람의 미래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여 결국 국민과 문화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일본의 교육환경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독서는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

"독서는 인간 형성의 기본입니다. 또 사회 질서 유지의 바탕입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데 책읽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본에 독서마을을 만든 다이고 마치의 와타히키 정장(우리나라의 군수, 혹은 면장에 해당)의 말이다. 그는 책읽기 없이 경제성장만 추구한다면 일본은 무너질 수 밖에 없지만, 활자 문화를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다투지 않을 뿐더러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문자가 인간 성장의 바탕이라고 보고, 이것이 경제 성장과 개인의 행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책은 미국의 글쓰기 교육과 일본 독서 교육의 취재과정을 통해 글을 읽는 일이 인류의 역사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목한다. 나라가 발전하는 동력을 '글쓰기'로 보고, 미국과 일본의 글쓰기 교육 현장에 집중한 것이다. 사실 내용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다. 하지만 교육이야말로 한 사람의 근간을 이루며 한 나라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볼 때, 경제 대국인 일본과 미국의 교육 환경은 교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책읽기를 향한 이들의 치열하고 치밀한 현장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 해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변화시키는 자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보문고[북모닝CEO]편집팀